

# 탐욕과 아집 넘어서야 본 모습 볼 수 있어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 37 변신요괴 죽이고 쫓겨나는 손오공

인삼과를 복용한 현장법사.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기운이 팔팔하다. 그 기운이 구도심으로 뻗쳐 열심히 경 구하러 가는 길을 재촉한다. 그렇지만 인도 가는 길 또한 만만치 않아라. 경치도 좋지만 험하기도 한 산이 또 가로막는다. 허위허위 오르다보니 팔팔한 기운에 걸맞게 배도 또한 빨리 고파진다. 현장법사, 손오공을 채근한다.

“오공아! 빨리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너라.”

손오공 근두운 타고 하늘 높이 올라 사방을 둘러보고 멀리 복숭아나무에 잘 익은 복숭아 달린 것 찾아내곤 그거 따다 드리겠다고 찾아간다.

“산이 높으면 반드시 요괴가 있고 골짜기가 험준하면 도깨비가 생긴다”고 했던가?

이 산에도 요괴 한 마리 어슬렁거리다 현장법사 일행 발견하고 침을 삼킨다. 어여쁜 처자로 둔갑하여 먹을 것 들고 그 앞에 나선다. 지혜의 눈 뜨지 못한 현장법사는 물론이고, 저팔계 사오정 모두 요괴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네. 그 꽃다운 자태에 저팔계 벌써 음식이 솟는데 거기에 맛있는 음식 공양까지 올린다 하니 벌써 입이 헤~벌어진다.

그때 마침 복숭아 따가지고 돌아오던 손오공, 한눈에 요괴의 정체를 알아채곤 여의봉으로 단매에 때려죽여 버린다. 그런데 이 요괴 재주가 비상하다. 몸은 버리고 혼만 빠져나오는 술법을 부리니 죽어 널브러진 처자 시체만 남았구나.

현장법사는 그 잔인함에 치를 떨고 예쁜 처자와 먹을 것을 모두 놓친 저팔계, 성질이 나서 부추기니 현장법사, 손오공 머리테를 조여 대는 긴고주를 외워댄다.

“너같이 불자의 본분인 자비를 망각한 놈 필요 없다. 당장 내 문하에서 나가거라.”

손오공 성질은 급하고 사나위도 의리는 굳다. 오행산에서 구해주고 제자로 삼은 현장법사의 은혜 아직 갚지 못했는데 버리고 갈 수가 없다. 애걸복걸을 하니 마음 약한 삼장법사, 거들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다짐을 두고 손오공을 용서해 준다.

그런데 겨우 몸을 빼낸 요괴, 현장법사라는 좋은 음식(?)에 대한 미련도 남고 또, 손오공에 당한 분함과 오기도 발동하여 이제 죽은 처자의 머리 쫓되는 노파로 둔갑하여 온다.

그렇지만 손오공 역시 한눈에 알아채곤 또 다시 여의봉으로 단매에! 어찌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 또 어찌 전제되었는지도 아시겠지?

현장법사 긴고주...중얼 중얼...손오공 대굴 대굴...대굴 대굴...

다행히 이번도 손오공의 음식가 통하는 것까지 그대로 전제되네. 그런데 정말 끈질긴 요괴.

모든 것이 상세판 아니던가? 이제 죽은 처자의

애비요, 죽은 노파의 남편인 노인네로 분장하고 나타난다. 손오공도 이제는 대비를 한다. 토지신과 산신령을 불러 요괴가 술법 부려 빠져 나가지 못하게 대비를 하고 여의봉 휘둘러 단매에!

그래서 끈질겼던 요괴의 운명도 여기서 끝! 그래서 어찌 되었는지 역시 말하지 않아도...현장법사 중얼 중얼...손오공 대굴 대굴...그런데 끝이 다르다!

모든 것은 상세판? 세 번째에 요괴가 죽었듯이 손오공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손오공이 아무리 사정해도 현장법사 노여움이 풀리지 않네. 손오공의 설명이 어찌 그리도 먹히지 않느냐? 현장법사가 그토록 어리석어? 그렇게 아니냐!

저팔계의 탐욕과 질투심이 끼여든 탓이다. 모두 저 원숭이 사형이 술법을 부려 엉뚱한 사람 죽여놓고 요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리니 아직 지혜의 눈 뜨지 못한 현장법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나!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손오공 다시 부르지 않는다는 문서까지 써 주고 매물처가 손오공을 내쫓아 버린다.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살려 죽고 새를 잡고 나면 활은 창고 속에서 썩게 된다던가? 손오공의 장탄식만 소울 바람 속에 스러질 뿐.

애고고, 불쌍한 손오공! 다시 수렁에도 돌아와 원숭이 왕 놀음이나 하게 되었구나.

이야기 줄거리 잘 읽어 보셨죠? 손오공이 인삼

### 주체의식과 지혜와의 충돌 묘사 탐욕 상징, 저팔계의 부추김 이어져 내적 갈등 극복은 통일된 인격 형성

과 뿌리째 뽑아버리는 큰 사고를 친 대목에 “서유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하고 조바심을 했다니, 이제 서유기 진행에 더 큰 위기가 닥쳤네요. 아무리 현장법사가 실제 역사에 나오는 주인공이라 해도 우리 손오공 없으면 서유기가 어찌 진행되었어요? 우리 이야기 제목도 ‘손오공이 기가 막혀’인데 정말 손오공 기막혀하는 대목으로 끝나 버리겠지요? 이거 정말 근본적인 위기상황이요? 뭐 서유기가 여기서 끝난 거 아니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않으신다고요? 애구, 그렇게 심드렁한 태도 좀 버리고, 심정적으로 몰입을 좀 해보세요. 그야 진정한 서유기의 묘미를 알 수 있던 말씀입니다. 뭐,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알 건 안다고 하지는 마세요. 알 건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대로 아는 분 없다는 거! 저도 알 건 안다고요!

이거 정말 위기상황이예요! 근본적인! 왜냐구요? 내가 분열되어 버렸잖아요! 우선 현장법사와 손오공이 결별을 한다는 사태가 무얼 말하는 것인가요? 현장법사라는 의식주체와 현장법사의 마음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지요. 좀 좁게 해석하

면 현장법사라는 주체의식과 손오공으로 상징된 지혜가 갈등을 일으킨 것이구요. 거기에 저팔계로 상징되는 탐욕이 끼어들어 부채질을 하네요. 그리고 미혹한 현장법사의 주체성이 그 탐욕의 부추김을 받아서 지혜의 충고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내쳐버리는 사태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과 자신이 서로 다루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전혀 겪어 보지 못한 분들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앞으로라도 계속 그런 일 겪지 않으시고 넘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생살이가 어찌 그리 만만할까요? 누구나 한번쯤은 겪을 겁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자아의 분열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게 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겪기는 하는데, 진지하지 못한 분들은 대중 넘겨 버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를 생생하게 의식하게 되는 것이겠군요. 그럼 어렵지 않게 대중 넘기는 게 좋은 거 아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발전도 없어요. 자신의 내부적 갈등을 아프게 체험하고, 그것을 극복해 낼 때 보다 통일된 인격성을 갖춘 자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성 없는 자기 주체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러저러한 한 세상 살다 죽는 거지요.

네요. 그게 어떤 문제냐구요? 자기 주체의 통일성 어찌고, 인식 어찌고 하는 말이 통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라구, 괴로움 겪지 않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최고 아니냐구요? 애고, 앞의 이야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음미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도 했을 텐데요. 반성 없이 그러저러한 한계상 보내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좀 진지하게, 향상심(向上心)을 잃지 않는 자세를 바탕으로 하기로 해요. 나칠게님이 존경하는 저팔계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 태평한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야기 진행에 저팔계가 문제 일으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장애가 된다구요!

나칠게님은 전혀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이 상황의 심각함을 확실히 아셨겠지요? 또 이 상황이 전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삶을 음미해 보려는 여러분들이 겪으셨거나, 앞으로 겪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아셨을 거구요. 나칠게님과 같은 태도를 가진 분은 정말 드물고도 귀한(?) 분이라는 생각으로... 다음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그림·최추현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계부착 20,000원  
\*크기: 8.5cm×21cm

**봉축연꽃리본(100개)**  
일반 18,000원  
고급 27,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90,000원**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 65,000
- 23cm (50구) @ 65,000
- 25cm (50구) @ 65,000
- 30cm (50구) @ 65,000
- 35cm (50구) @ 70,000
- 40cm (50구) @ 73,000
- 50cm (50구) @ 75,000
- 1 m (50구) @ 90,000
- 2 m (25구) @ 80,000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바림·공단등(6cm) @ 2,500원 (60개이상)
- 바림·공단등(8cm) @ 3,000원 (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cm) @ 6,000원 (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cm) @ 13,000원 (6개이상)
- 바림·공단등(20cm) @ 35,000원 (2개이상)
- 바림·공단등(30cm) @ 90,000원 (1개이상)
- 황금등(6cm) @ 2,700원 (60개이상)
- 황금등(8cm) @ 3,300원 (30개이상)
- 황금등(10.5cm) @ 6,500원 (16개이상)
- 황금등(13cm) @ 15,000원 (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도비단접등(12cm)(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종류: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하단부분은 생·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cm×70cm)